“한국불교 거듭날 계기” ‘선원청규’ 11월 발간

편찬위, 총무원장 자승스님 예방 경과 설명

오는 11월 〈선원청규〉 발간 고불식을 봉행하는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스님들이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무여(봉화 축서사 선원장)·의정(양평 상원사 선원장)·영진(문경 대승사)·월암(수좌회 학술위원장) 스님 등 전국선원수좌회 대표들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했다.

〈선원청규〉 편찬위원장 의정스님은 “그동안 준비해온 〈선원청규〉의 가본(假本)을 만들어서 종정예하를 비롯해 원로의원, 총무원장, 자문위원들에게 오늘 (책자를) 발송 했다”면서 “총무원장 스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 보시고 자문을 해 달라”고 말했다.

봉화 축서사 선원장 무여스님은 〈선원청규〉 편찬 작업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무여스님은 “불교가 한반도에 상륙한지 170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동안 (한국불교의) 청규가 없었다”면서 “중국(에서 만든) 청규를 갖고, 우리 것처럼 사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여스님은 “중국은 풍토나 문화가 우리에 안 맞고 힘든 것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제정한 〈선원청규〉는 한국불교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스님은 “수좌들이 합심해서 그동안 없었던 것을 순수하게 우리의 손으로 제정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불교가 흥왕(興旺)했던 신라와 고려 시대에 청규를 만들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무여스님은 “현재 (종단의) 종헌 종법 등 법규를 근간으로 우리 시대의 풍토에 맞는 청규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다”며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들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자평했다.

또한 무여스님은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불교와 조계종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포교와 사회문제 등에 대해서도 망라해 ‘청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가톨릭도 성전을 편찬해서 현실화하는데 4~5년이란 세월이 걸리고, 초안을 갖고 교구에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완결편을 만드는데 5~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선원청규가〉 만들어 진 것은 편찬위원장을 비롯한 스님들의 추진력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오는 11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선원청규〉 발간 고불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선원수좌회 대표들의 총무원장 스님 예방에는 교육원장 현응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 등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지난 6일 광주 무각사에서 위촉장을 받은 전법사 35명 등 광주·전남 전법단 출범식에 참석한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포교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포교사각 지대 우리가 맡는다”

광주·전남 전법단 출범… 전법사 35명 위촉

호남을 불국토화하기 위한 전법의 횃불이 밝혀졌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6일 광주 무각사에서 광주·전남 전법단을 출범하고 전법사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포교원장 혜총스님, 전 포교원장 암도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 등 각 사암스님과 전법사 스님, 정영균 광주전남포교사단장, 지용현 광주전남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 전법단 초대단장을 맡은 길상사 주지도제스님은 출범사에서 “광주 전남은 근세 들어 타지역에 비해 불교세가 열악해 어느 때보다 전법활동이 요구되고 있었다”며 “이제 전법단을 중심으로 호남불교가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가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광주·전남 지역 전법사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전법의 길을 떠난 많은 부처님과 전법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불교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남도땅을 불국토화 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스님도 축사를 통해 “호남은 아직 전법과 포교에 들인 노력의 열매를 걷기보다 더 많은 씨를 뿌려야 할 때”라며 “전법단 출범에 맞춰 호남불교가 일대 혁신이 되도록 사부대중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광주·전남 전법단은 광주 담양 화순 장성지역을 맡은 광주 전법단(단장 도제스님)과 목포 나주 무안 순천에서 활동하는 전남 전법단(단장 원광스님)으로 구성되었다.

새로 위촉된 35명의 전법사 스님들은 전법 1팀(어린이 청소년 대불련), 전법2팀(병원 교도소 소년원 군법당), 전법3팀(다문화 직장직능) 등으로 나뉘어 전법활동 지원, 정보교류, 포교전략 수립 등의 포교활동을 펼친다. 또한 광주·전남 전법단은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전법지원단을 결성해 사부대중이 함께 소외계층과 포교사각지대 포교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maha0703@ibulgyo.com

불교언론문화상 상금 ‘상향’

총무원장 자승스님 ‘지원방안’ 지시

불교언론문화상 상금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수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상금이 종단의 격(格)에 맞지 않는다”면서 “상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종단과 운영위원회가 같이 검토해서 상금을 올리는 게 좋겠다”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종단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했다.

위촉장 전달 후 운영위원들과 차담을 하는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안국선원 수불스님이 불교언론문화상 초창기부터 원력을 세워 기초를 닦았다”면서 “고마운 일”이라고 치하했다.

전달식에 배석한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김재일 보리모니터 이사장께서 보이지 않는 곳(방송 내용 가운데 불교 관련 부분에 대한 모니터 활동)에서 외호하는 분”이라고 그동안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고마운 일로 앞으로는 (활동 내용을) 보이게 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초청으로 지난 7일 총무원을 방문한 불교언론인회 회원들. 왼쪽부터 정일태 KBS 문화부장, 김종두 전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수석위원, 박준영 국악방송 사장,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강신철 전 경향신문 상임고문, 김종두 전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수석위원, 하춘생 동방대학원 대학교 처장.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불교언론인회 초청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불교언론인회(회장 이동식) 회원 7명을 초청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환담을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늘 종단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환영했다. 박준영 국악방송 사장은 “추석에 보내주신 〈붓다브레인〉을 잘 읽었다”면서 “내용이 너무 좋아 주위 사람들에게 몇 권 사드렸다”고 인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에 이어 지난달 추석에도 사회각계 인사 1500명에게 〈붓다브레인〉 등 2권의 책을 선물했다.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불교언론인회가 대외적으로 불교를 대표하는 언론인들의 모임”이라며 “과거에는 종단과 다소 관계가 서먹한 부분도 있었고, 스스로 자립해서 활동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종단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면서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언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종단재산 매각 시도 초심, ㄷ 스님 ‘제적’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5차 심판부를 열어 ㄷ 모스님에 대해 제적판결을 내렸다. ㄷ 모스님은 종단 재산 매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최고 형량인 제적을 판결했다. 이 스님에 대해 현재 세속법으로 처벌 받아 실형을 살고 있어 〈승려법〉 47조가 추가 적용됐다. 이성수 기자

본·말사 주지인사

(9월30일 종무회의 결과)

소윤스님 논산 관동사 | 도오스님 경산 경흥사 | 동제스님 서귀포 서산사 | 대광스님 제주 정토사

견월스님 양주 송암사 | 법상스님 구리 관음정사 | 성오스님 의왕 부곡사 | 법정스님 경기도 광주 약사사

현장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불교미래사회포럼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지난 9월28일 ‘사찰건축의 예술성, 그 다양함’을 주제로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제20차 불교미래사회포럼을 다녀왔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설명에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찰건축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대 상황, 종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과 각 건축에 담긴 의미에 대해 설명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각 사찰에서 잘못된 중창 불사로 인해 전각에 담긴 의미가 훼손되거나 본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한 점은 유익했다.

현 시대에 맞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우리 시대를 말한다’를 주제로 불교미래사회연구소가 개최하는 불교미래사회포럼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함세웅 신부, 한홍구 교수, 유시민 전 장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해 꾸준히 진행한 것이 어느덧 20회를 맞이했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 문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해 대안을 찾고자 마련된 포럼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종교만이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종교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사회와 소통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불교의 역할일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불교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불교미래사회포럼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군불교 후원 “만인동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종교구 만인동참 후원금 참여자 명단 〈2010.9.1~9.30〉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02)797-7266

1. 지정기탁

법웅사	300,000
통해사	1,000,000
옥천암	500,000
불암사 거사림회	1,000,000
금련사	2,000,000
만덕사(혜명스님)	3,430,000
구승후회회	500,000
원성스님	6,000,000

2. 사찰 및 단체

(주)서린사	20,000
(주)서린연역	105,000
갈로회	30,000
관음회	20,000
덕산사	100,000
내원사	20,000
능가사	200,000
대각사	10,000
대한불교조계	10,000
대한불교조계	30,000
대한불교조계	30,000
대한불교조계종	20,000
대한불교조계종	20,000
대한불교 청량사	50,000
덕산정사	10,000
동명사(대구)	20,000
마라도절	20,000
명봉사	20,000
목탁소리	100,000
묘각사	20,000
묘심사	100,000
미타사(성북구)	100,000
민족사	20,000
반야선원(기장)	30,000
반야정사	100,000
반야정사	100,000
백담사	300,000
법왕사	50,000
법왕정사	30,000
법왕정사	30,000
보경사	30,000
보경사	30,000
보경사	30,000
보광사(울진)	10,000
보광사(파주)	100,000
보림사(기장)	50,000
보림사(정읍)	10,000
보현사	20,000
보현사(고성)	20,000
보현사(김해)	20,000
보현사(대구)	50,000
부흥설비	40,000
사리함	20,000
삼산사	10,000
성흥사(진해)	200,000
소림사(부천)	140,000
송광사(순천)	300,000
신흥사	50,000
악수사	100,000
연대암	100,000
연대암	100,000
영명사	10,000
영화사(광진구)	300,000
오대산지장암	20,000
운문사선행회	100,000
운문사	10,000
원주사(화순)	100,000
유봉사	30,000

윤중오토카	10,000
정각사	10,000
정법사(마산포교당)	100,000
조계종직할교구	10,000
조병희/대숲	200,000
창덕암	50,000
천진암	10,000
청계사(의왕)	100,000
정룡암	30,000
일묵암	10,000
태을암	20,000
팔공산사	30,000
팔공산사(김천)	30,000
홍법사	10,000
홍복사	10,000
홍복사(대오스님)	100,000
홍복사(대오스님)	100,000
홍복사	10,000
홍복사	20,000
홍복사	10,000
대한불교조계	10,000

3. 스님 및 법사님 (총무원 교역직)

총무원장스님	10,000
포교원장스님	10,000
포교원장스님	10,000
포교원장스님	10,000
포교원장 스님	10,000
총무부장스님	10,000
기획실장스님	10,000
재무부장스님	10,000
문화부장스님	10,000
사회부장스님	10,000
호법부장스님	10,000
사서실장스님	10,000
불교중앙박물관관장	10,000
문화사업단 단장	10,000
총무국장스님	10,000
기획국장스님	10,000
감사국장스님	10,000
재정국장스님	10,000
문화국장스님	10,000
사회국장스님	10,000
호법국장스님	10,000
조사국장스님	10,000
상임감찰스님1	10,000
상임감찰스님2	10,000
상임감찰스님3	10,000
상임감찰스님4	10,000
상임감찰스님5	10,000
호법과장스님	10,000
조사과장스님	10,000
사서국장스님	10,000
사서 스님	10,000
사무국장	10,000
문화사업단 국장	10,000
(일반사찰 스님)	
교각스님	356,000
교각스님	10,000
금담스님	10,000
기원스님	10,000
남전스님	50,000
대원스님	10,000
도행스님	10,000
동현스님	10,000
동운스님	10,000
무이스님	10,000
무이스님	10,000
묘수스님	30,000
법륜스님	20,000
법륜스님	1,000,000
상명스님	10,000
상옥스님	50,000

선응스님	10,000
성공동스님	10,000
성수동스님	10,000
수성스님	10,000
수우스님	20,000
영명진스님(합천)	20,000
영화스님	30,000
일목스님	20,000
정현자	10,000
정회자	10,000
정회갑	50,000
정혜선	10,000
지원스님	10,000
지혜스님	10,000
지혜스님	30,000
지혜스님	10,000
지혜스님	10,000
지혜스님	10